

도내 골프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 최 영 근

들어가면서

국내 최고의 휴양관광지인 제주도는 2009년 현재 26개(18홀 환산 38개 - 회원제, 퍼블릭 포함)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이를 관광과 상호 연계 시켰을 때 어느 지역보다 성공조건이 아주 우수하고, 최근 각종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골프는 물론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기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현재 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주도 관광산업의 중추적 핵심인 골프산업에 대해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반대중들 사이에 골프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2008년도에는 골프장 내장객이 거의 2,400만명을 육박하여 매년 9.2%의 증가 추이를 보였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09). 이는 국내 골프장의 지속적인 건설 및 공급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12월말 기준(군 골프장 제외) 전국에 310개의 골프장(표 1)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08).

1. 골프장현황

1900년도에 6홀 규모의 골프장이 영국인에 의해 북한 원산에 건설되면서 한반도에 처음으로 골프가 소개 되었다(한국골프협회, 2002). 이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는 동안 국내의 골프장 건설은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민주화시기를 보냈던 80년대까지도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의 회원제 골프장 건설이 대부분으로 골프는 대중들로부터 사치성 스포츠이자 상류층

〈표 1〉 지역별 골프장현황(회원제+퍼블릭)

| 시 도 | 2008년 | | 2007년 | | 증감율 | |
|-----|-------|-------|-------|-------|-------|-------|
| | 골프장수 | 홀수 | 골프장수 | 홀수 | 골프장수 | 홀수 |
| 강원 | 36 | 599 | 33 | 554 | 9.1% | 8.1% |
| 경기 | 114 | 2,266 | 110 | 2,224 | 3.6% | 1.9% |
| 경북 | 33 | 590 | 26 | 494 | 26.9% | 19.4% |
| 경남 | 26 | 549 | 22 | 486 | 18.2% | 13.0% |
| 충북 | 19 | 342 | 13 | 252 | 46.2% | 35.7% |
| 충남 | 12 | 225 | 9 | 181 | 33.3% | 24.3% |
| 전북 | 11 | 205 | 10 | 178 | 10.0% | 15.2% |
| 전남 | 21 | 375 | 16 | 285 | 31.3% | 31.6% |
| 제주 | 38 | 654 | 34 | 582 | 11.8% | 12.4% |
| 합계 | 310 | 5,805 | 273 | 5,236 | 13.6% | 10.9% |

도내에서는 오라CC가 1979년 최초로 등록한 회원제, 퍼블릭 포함)이 운영중이며 약 10여 개 - 회원제, 퍼블릭 포함)이 운영중이고, 현재 26개 골프장(18홀 환산 38개가 건설 및 승인 중에 있다.

〈표 2〉 도내 골프장현황

| 구 분 | 골프장명 | 업체명 | 소재지 | 홀 수 | |
|-------|-----------|-----------|--------------|-----|-----|
| | | | | 회원 | 대중 |
| 계 | 36개소 | | | 720 | 195 |
| 운영중 | 오라CC | 오라관광(주) | 오라 289 | 36 | - |
| | 제주CC | (주)제주CC | 영평2238-2 | 18 | 9 |
| | 중문GC | 한국관광공사 | 색달3125-1 | 18 | - |
| | 캐슬렉스제주GC | (주)캐슬렉스제주 | 광평산125,금악산41 | 18 | 9 |
| | 크라운CC | (재)관정이중환 | 북촌 산63 | 18 | 9 |
| | 핑크스GC | (주)핀 크 스 | 상천 산62-3 | 18 | 9 |
| | 해비치CC | 해비치리조트(주) | 신흥 산30 | 27 | 9 |
| | 나인브릿지CC | CJ개발(주) | 광평산3, 봉성 산16 | 18 | 9 |
| | 레이크힐스CC | (주)레이크힐스 | 중문 산5 | 27 | - |
| | 봉개프라자 | 한화국토개발(주) | 봉개 산53 | - | 9 |
| | 라운GC | 라운레저개발(주) | 저지 산18 | 27 | - |
| | 엘리시안CC | LG건설(주) | 어음 산17 | 27 | 9 |
| | 스카이힐 제주CC | (주)호텔롯데 | 색달 산24 | 27 | 9 |
| | 로드랜드CC | (주)로드랜드 | 봉성 산5 | 27 | - |
| | 블랙스톤 | (주)블랙스톤 | 금악 산67-1 | 18 | 9 |
| | 수농 | (주)수농 | 가시 205 | - | 18 |
| 사이프러스 | 제주리조트(주) | 성읍 3196-1 | 27 | 9 | |

〈표 2〉 도내 골프장현황

| 구 분 | 골프장명 | 업체명 | 소재지 | 홀 수 | |
|-------|--------|-----------|----------------|-----|-----|
| | | | | 회원 | 대중 |
| 운영중 | 제피로스GC | 제피로스(주) | 와홀 산26 | 18 | - |
| | 에버리스CC | 신안관광(주) | 어음 산35 | 18 | 9 |
| | 라헨느 | 라헨느리조트(주) | 봉개237-5 | 18 | 9 |
| | 한라산 | (주)부건 | 오등 산57 | 18 | - |
| | 테디벨리 | (주)제이에스개발 | 서광 산6-2 | 18 | - |
| | 세인트 포 | (주)에니스 | 김녕 산1-1 | 36 | - |
| | 부영CC | 남광건설산업(주) | 수망 산1 | 27 | 9 |
| | 우리들메디칼 | (주)웰니스우리들 | 상호 산26 | 18 | - |
| | 더 클래식 | (주)호원 | 수망 산191 | 18 | - |
| | 소계 | 26개소 | | 540 | 144 |
| 승 인 | 오라관광지구 | 유일개발(주)외2 | 오라2동 산91 | 18 | - |
| | 이어도 | 이어도cc(주) | 덕천 산84 | 18 | 18 |
| | 그랑블 제주 | 그랑블제주(주) | 금악 산32 | 18 | - |
| | 재릉관광지구 | 보훈복지의료공단 | 협재 산149-6 | - | 18 |
| | 프라자 | 한화국토(주) | 상가 산94 | 18 | - |
| | 비치힐스 | (주)더원 | 대흘 산38-1 | 27 | - |
| | 스프링데일 | (주)동국개발 | 위미 산21 | 18 | - |
| | 소계 | 7개소 | | 117 | 36 |
| 절차이행 | 태양CC | (주)남양개발 | 서흥 산3 | 18 | 6 |
| | 내소날CC | (주)삼흥개발 | 동광 산14, 광평 산44 | 18 | 9 |
| | 소계 | 2개소 | | 36 | 15 |
| 예정자지정 | 블랙나이트 | (주)해동외1 | 동광 산90 | 27 | - |
| | 소계 | 1개소 | | 27 | - |

2. 골프장 내장객현황

지난 한해는 골프장업계에 큰 흐름의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골프장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고객들의 소비심리 저하로 골프장 매출액 역시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세특별법이 적용되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까지 두드러졌던 한해였다. 이에 따라 많은 골프장들이 자체적인 거품빼기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많은 국내골프장들의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하여 2008년 총 내장객수는 7.9%가 증가한 23,982,666명으로 조사됐다. 2006년 대비 2007년도 증가율(13.1%)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2004년 이후 꾸준히 성장폭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2008년 들어 그 추세가 감소된 점은 경기불황의 여파가 골프장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310개소에 이르는 전국의 골프장들은 여러 가지 지구책을 만들며 내장객 확보에 신경을 곤두세우

고 있다. 1홀 당 내장객수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2007년 대비 2.7%가 감소한 4,131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전국골프장 내장객수(회원제+대중제)

| 시도 | 내장객수 | | | 홀 당 내장객 | | |
|----|------------|------------|-------|---------|-------|--------|
| | 2008년 | 2007년 | 증감율 | 2008년 | 2007년 | 증감율 |
| 강원 | 1,946,984 | 1,751,684 | 11.1% | 3,250 | 3,162 | 2.8% |
| 경기 | 10,275,163 | 10,268,204 | 0.1% | 4,534 | 4,617 | -1.8% |
| 경북 | 2,584,922 | 2,073,468 | 24.7% | 4,381 | 4,197 | 4.4% |
| 경남 | 2,542,916 | 2,399,862 | 6.0% | 4,632 | 4,938 | -6.2% |
| 충북 | 1,413,767 | 1,158,659 | 22.0% | 4,134 | 4,598 | -10.1% |
| 충남 | 970,258 | 822,059 | 18.0% | 4,312 | 4,542 | -5.1% |
| 전북 | 919,876 | 746,238 | 23.3% | 4,487 | 4,192 | 7.0% |
| 전남 | 1,618,951 | 1,454,796 | 11.3% | 4,317 | 5,105 | -15.4% |
| 제주 | 1,709,829 | 1,546,633 | 10.6% | 2,614 | 2,657 | -1.6% |
| 합계 | 23,982,666 | 22,221,603 | 7.9% | 4,131 | 4,244 | -2.7% |

2008년 골퍼들의 발길을 제주도로 돌리기 위해 제주도와 골프장들이 노력으로 그린피와 카트비 인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던 제주도의 골프장들은 조세특례법시행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에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불기 시작한 환율상승은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에 따라 도의 총 내장객수는 2007년보다 10.6%가 성장한 1,709,829명을 기록했다. 전국 내장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1%가 상승한 7.1%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내장객수가 무려 17%가 성장하는 호황을 누렸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지금까지 국외로 눈을 돌렸던 골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제주도로 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세특례법시행으로 인해 2009년에는 이런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조세특례법 적용을 2년 뒤에 약속하고 있지만 2년이란 긴 시간동안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수도권 골프장들의 어깨가 무겁게만 보인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준비하는 기간이란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표 4〉 연도별 골프장 이용객수 추이

(단위 : 명, %)

| 연도별 | 합계 | | 회원제 | | 퍼블릭 | | 군 골프장 | |
|-------|------------|-------|-------------|-------|-----------|-------|---------|-------|
| | 이용객수 | 증감률 | 이용객수 | 증감률 | 이용객수 | 증감률 | 이용객수 | 증감률 |
| 1990년 | 3,546,593 | 5.5 | 3,155,442 | △0.0 | 316,410 | 96.6 | 76,741 | 66.6 |
| 1991년 | 4,381,964 | 23.5 | 3,730,579 | 18.2 | 568,269 | 79.6 | 83,116 | 8.3 |
| 1992년 | 5,854,622 | 33.6 | 4,848,536 | 30.0 | 922,373 | 62.3 | 83,713 | 0.7 |
| 1993년 | 6,334,184 | 8.2 | 5,163,183 | 6.5 | 1,057,519 | 14.7 | 113,482 | 35.5 |
| 1994년 | 7,180,492 | 13.4 | 5,958,244 | 15.4 | 1,095,383 | 3.6 | 126,865 | 11.8 |
| 1995년 | 8,172,011 | 13.8 | 6,780,395 | 13.8 | 1,211,699 | 10.6 | 179,917 | 41.8 |
| 1996년 | 8,890,854 | 8.8 | 7,312,872 | 7.9 | 1,384,844 | 14.3 | 193,138 | 7.3 |
| 1997년 | 9,730,607 | 9.4 | 7,835,420 | 7.1 | 1,691,097 | 22.1 | 177,090 | △8.3 |
| 1998년 | 8,322,655 | △14.5 | 6,754,146 | △13.8 | 1,410,820 | △16.6 | 157,689 | △11.0 |
| 1999년 | 10,326,579 | 24.1 | 8,362,330 | 23.8 | 1,783,517 | 26.4 | 180,732 | 14.6 |
| 2000년 | 11,970,993 | 15.9 | 9,458,780 | 13.1 | 2,328,039 | 30.5 | 184,174 | 1.9 |
| 2001년 | 12,885,175 | 7.6 | 9,871,732 | 4.4 | 2,846,048 | 22.3 | 167,385 | △9.1 |
| 2002년 | 14,378,925 | 11.6 | 10,804,604 | 9.4 | 3,410,224 | 19.8 | 164,097 | △2.0 |
| 2003년 | 15,413,108 | 7.2 | 11,419,580 | 5.3 | 3,850,162 | 12.9 | 143,366 | △12.6 |
| 2004년 | 16,605,256 | 7.7 | 12,137,014 | 6.3 | 4,329,585 | 12.5 | 138,657 | △3.3 |
| 2005년 | 17,854,598 | 7.5 | 12,685,326 | 4.5 | 5,038,748 | 16.4 | 130,524 | △5.9 |
| 2006년 | 19,727,885 | 10.5 | 13,442,072 | 6.0 | 6,146,140 | 22.0 | 139,673 | 7.0 |
| 2007년 | 22,377,392 | 13.4 | 14,836,050 | 10.4 | 7,419,866 | 20.7 | 121,476 | △13.0 |
| 2008년 | 23,982,666 | 7.9 | 115,654,098 | 5.8 | 8,328,568 | 12.2 | 110,783 | △8.8 |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자료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재구성 했음.

주 : 군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일반인의 이용객수만 포함됨.

〈표 5〉 향후 국내 골프장 이용객수 전망

(단위 : 천명, %)

| 구분 | | 2007년 | 2009년 | 2011년 | 2015년 |
|----|-----------|---------------|---------------|---------------|---------------|
| A | 골프장 이용객수 | 22,377(100.0) | 26,930(100.0) | 29,155(100.0) | 28,011(100.0) |
| | -회원제 골프장 | 14,836(66.3) | 17,280(64.2) | 18,683(64.1) | 17,947(64.1) |
| | -퍼블릭 골프장 | 7,420(33.2) | 9,520(35.3) | 10,342(35.5) | 9,934(35.5) |
| | -군 골프장 | 122(0.5) | 130(0.5) | 130(0.4) | 130(0.4) |
| B | 15세 이상 인구 | 39,722 | 40,566 | 41,345 | 42,544 |
| C | 비중(A÷B) | 56.3% | 66.4% | 70.4% | 65.8% |

자료 : 레저백서 2008,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표 6〉 제주도 골프장 이용객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제주도 골퍼 | 259,439 (33.2%) | 293,579 (34.6%) | 319,388 (32.7%) | 369,534 (36.3%) | 468,214 (39.4%) | 531,751 (36.9%) |
| 육지 골퍼 | 471,330 (60.2%) | 491,355 (57.9%) | 601,227 (61.5%) | 606,187 (59.6%) | 685,396 (57.6%) | 879,613 (60.9%) |
| 외국인 골퍼 | 51,835 (6.6%) | 63,189 (7.5%) | 56,471 (5.8%) | 41,726 (4.1%) | 35,108 (3.0%) | 32,001 (2.2%) |
| 합계 | 782,604 [11.6%] | 848,124 [8.4%] | 977,086 [15.2%] | 1,017,447 [4.1%] | 1,188,718 [16.8%] | 1,443,365 [21.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 : ()안은 구성비, []안은 전년도 증감률임.

3. 이용요금 현황

32,800원, 주말은 40,300원이 산 것으로 파악

지역별 이용요금 현황에 따른 제주도와외의 1인
당 부담액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주중은

되고 있다.

〈표 7〉 지역별 이용요금 현황

(단위 : 원)

| 지역별 | 그 린 피 | | 캐디피 | 카트비 | 1인당 부담액 | |
|-----|---------|---------|--------------------|--------------------|---------|---------|
| | 주중 | 주말 | | | 주중 | 주말 |
| 수도권 | 177,000 | 219,000 | 23,750 (95,000) | 20,250 (81,000) | 221,000 | 263,000 |
| 충청권 | 118,000 | 163,000 | 23,500 (94,000) | 20,250 (81,000) | 161,750 | 206,750 |
| 강원권 | 122,000 | 168,000 | 23,250 (93,000) | 19,750 (79,000) | 165,000 | 211,000 |
| 영남권 | 115,000 | 149,000 | 22,000 (88,000) | 18,000 (72,000) | 155,000 | 189,000 |
| 호남권 | 91,000 | 140,000 | 22,000 (88,000) | 18,500 (74,000) | 131,500 | 180,500 |
| 평균 | 113,000 | 168,000 | 23,000 (92,000) | 19,250 (77,000) | 139,000 | 210,000 |
| 제주권 | 102,000 | 136,000 | 22,000 (88,000) | 11,750 (47,000) | 135,750 | 169,750 |

4. 도내 골프산업의 발전방안

제주지역 골프장들의 홀 당 내장객 감소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해마다 홀 당 내장객 감소폭은 커지고, 골프장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공급 초과 현상으로 빚어지는 경영난은 이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지역은 2009년 1월 현재 26개소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으며(회원제 13개소, 대중 3개소) 올해 개장할 골프장과 승인과 절차이행 등을 밟고 있는 골프장들까지 합하면 앞으로도 40개에 육박하는 골프장이 제주지역에 들어서게 된다.

수요창출 없는 공급초과 현상은 90년대 초반 일본 골프장 도산사태를 연상케 한다. 거기에다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폭우와 폭설 등의 기상악화 현상은 제주지역 골프장의 영업일수 부족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내장객 감소세를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2007년에 비해 2008년 내장객 수는 10.6% 증가하였으나 홀 당 내장객 수는 1.6% 감소했다. 이는 골프장의 증가와 함께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영업일수 부족 등 늘어나는 휴장으로 인해 더 이상 제주도가 4계절 라운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항공사의 제주행 항공편이 턱없이 부족해 제주를 찾아오는 골퍼들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장객 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의 높은 물가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비교되면서 제주를 찾는 골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프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도모하고 골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관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존의 상식을 파괴할 수 있는 골프 라운딩비용 적용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이 하였듯이 현재 제주도의 골프장들은 내륙지방의 일반 골프장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린피의 경우 약간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용 경비의 과다는 골프관광을 침체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그린피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의 저렴화가 필요하다. 즉,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대시설의 사용요금(캐디피, 카트비 등)의 저렴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골프 활동인구의 은퇴방지와 활동중지, 골프인구의 재활동 판촉 방안 등 새로운 골프 인구개척의 방안으로 현실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는 라운딩 비용의 인하와 부대시설 사용요금 인하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이른 아침과 오후 늦게 하는 플레이 요금인하, 가족플레이 구성 팀 요금인하, 여성 및 고령층이 편하게 플레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강화와 지자체의 퍼블릭 골프장 운영이다.

지자체는 수익성 있는 사업추진은 곤란하여 회원제 골프장사업 진출은 불가하지만 일반 대중골퍼와 골프관광객을 위한 퍼블릭 골프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린피 할인혜택 등 골프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원중심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부킹을 하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

용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으로의 전환 ·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골프관광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제주지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라 할 만큼 많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에 따라 많은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는 것 또한 관광자원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광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골프와 연관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골프관광을 즐기러온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골프장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지만, 몇 개의 골프장들이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관광여행사와 함께 상품을 추진한다면, 보다 많은 골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골프관광의 프로그램은 가격경쟁력과 프로그램 면에서 해외 골프관광지(특히 동남아시아 등)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골프관광은 골프를 주요 상품으로 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후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충분한 홍보활동 및 촉진활동이 필요하다.

즉,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을 활용한 배너 광고 및 홍보활동, 공신력 있는 대회의 유치가 필요하다. KPGA 또는 KLPGA, 그리고 USPGA와 USLPGA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시합의 유치를 통하여 제주도의 골프장들이 국제경기 또는 국내의 공인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잘 정비된 골프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대회를 개최한 골프장들은 그 부가가치가 보다 높아질 것이며, 해당 골프장을 찾아오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희소성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들어와야 한다. 접근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비행 시간대의 조절이 필요하다. 즉, 단순하게 비행기의 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행 시간대의 조절을 통하여 보다 이른 시간대의 비행이나 보다 늦은 시간대의 비행이 가능해야 하겠다. 현재의 비행 운영 시스템은 마지막 비행기가 너무 이른 시간에 끊긴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면 보다 많은 이용객들을 제주도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골프관광과 관련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골프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프장 및 관련 관광업체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많은 유관단체와 제주도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내 골프장들에 대한 세금의 완화가 필요하다. 도내의 골프장을 찾는 골프관광객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에 규제하는 세금과 관련한 정책이 보다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금이 완화 된다면 많은 골프장들에서는 세금이 완화 된 만큼 고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거나 근본적으로 그린피 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도내의 골프장에서 학생들이나 일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 제주도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대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 또는 골프관련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및 교환권의 형태로, 일반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에서는 골프용품 등의 지원형태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여덟째, 골프장을 방문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

계마케팅(CRM)이 필요하다.

골프장을 한 번 찾은 고객은 평생 고객이라는 인념하에 고객이 불편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한 적절한 관계마케팅(CRM)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보증금 제도개선, 전문지도자의 육성과 프로그램의 보급, 저렴한 골프 장비 보급, 골프대회 활성화 확대, 골프관련 통계의 대폭 정비 등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골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면서

골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100여 년이 된다. 이제 골프산업은 관광·레저, 숙박·유희·식음료·교통·수송 등 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관련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조업인 용품·의류산업까지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산업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골프산업은 골프장과 같은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고도의 복합서비스 산업이므로 골프산업의 특성과 파급효과(생산 증대효과 608,116.54백만원, 부가가치 증대효과 329,913.89백만원, 고용 증대효과 6,075명, 2008년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를 이해하고 다른 산업과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거두어들이는 것이 제주지역 골프산업 발전의 지름길이자 관광 진흥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객이 지출하는 소비지출액(2008년도 기준 골프관광 소비지출 규모 432,452백만원, 2008년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이 일반관광객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식음료 공급업체, 수송업체와 같은 다른 관련업체에 미치는 간접적 지출이 재생산을 유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에서 제주지역의 골프산업은 제주지역만이 가진 사계절 골프가 가능한 지정학적인 장점과 외국인 골퍼의 유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만 하며 또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색의 역사·전통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기반시설로 인정되어야 한다.

골프는 분명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특히 제주도는 정부차원에서 골프산업의 활성화가 장래에 제주도의 발전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골프는 국민의 여가활동 성향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외골프로 인한 관광 수지개선 측면에서 수용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현과제를 발전 전략으로 삼아 골프장경영의 개선을 통해 관광행태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골프장업체가 자기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재구축이 필수조건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가 미래를 위해 조직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에 이와 같은 문제 봉착시 이겨낼 체질개선과 골프업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